

전북대 정읍산학연협력센터 문 활짝

신축예산 176억원 투입 개소... 지역 경쟁력 선도 기대

정읍 지역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이끌 전북대학교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센터장 김대혁 교수)가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건립돼 지난 9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김대혁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이 센터는 지난 2012년 전북대가 정부로부터 176억 원의 신축 예산을 확보하고, 정읍시의 신축 부지(9,917.0㎡) 제공, 전북도의 7억 원 도비 지원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이 수립돼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건축면적 2,97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준공됐다.

이 센터는 정읍 첨단과학단지 내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

연구소와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등 첨단 국제 연구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공동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정읍을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주변의 첨단 국제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바이오·융합 분야의 대학원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관련된 전공 분야의 전문 과정을 운영해 연구 및 프로젝트형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의 교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보된 점인 교원을 중심으로 한 윈윈의 산학연협력 지원체제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와 정읍시의 특화 분야인 방사선 융합기술이나 생명·식품 산업의 국가

정책 연구 개발사업도 수주한다. 이 역시 전북대와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체로 구성된 기획 위원회를 운영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학연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기업연구관도 운영한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운영을 맡게 되는 기업연구관은 기업 및 기업 부속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대학과 기업 간 밀착형 산학연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해 10월 150억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정읍시와 협력해 구 정읍농고 초지에 '축산산도인력 육성센터' 및 '한우지원 연구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 등 산학

연협력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는 이들 기관들과도 융합·협력 시스템을 갖춰 머지않아 대학을 넘어 지역 경쟁력 향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정읍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으로도 활용, 지역민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대혁 센터장은 "이 센터는 우리 전북대가 정읍에 보유한 우수 연구센터와 국제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서남권 과학기술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산학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과 포장에 '구슬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정읍시 신태인의 한 한과공장에서 직원들이 차례상에 올라갈 한과를 포장하는 모습.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글로벌 전주 서포터즈 40명 위촉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글로벌 전주 서포터즈가 활동한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글로벌전주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20명과 서울과 전주 등 전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20명을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글로벌 전

주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추진계획 등 영상을 통해 관람했다.

특히 올해 글로벌전주 서포터즈에는 현지 방송작가와 호텔군무자, 뮤지컬 배우, 캐나다의 브랜드 홍보전문가까지 다양한 국적과 경력의 서포터즈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전주시 영문페이지, 페이스북, 한국에 관한 모든 것(www.facebook.com/globaljeonju)에 직접 촬영·편집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홍

보 콘텐츠를 올리고 출연, 번역 등을 통해 전주를 해외에 홍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효율성, 양방향성, 신속성 등의 특성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들도 SNS를 통한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는 국내 지자체 중에서도 외국인대상 SNS운영에 선제 대응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행사 등을 공유하여 전주를 한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로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세정과 1석4조

공감이벤트 '눈에 띄네'

전주시 세정과는 2018년 무술년 설을 맞아 1석4조 공감 이벤트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세정과는 재래시장 장보기, 구도심 살리기, 영화보기, 소문의 시간 등 뜻깊은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 장보기 후 고사동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구입한 지역 상품권으로 전통 중앙시장에서 떡, 과일 등 장보기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 영화관람 구도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부서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각종 업무와 가정사로 바쁜 계절 내내 직원들이 고사동에 소재한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서로 격식없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다짐했다.

김승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즐거워 일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 한다"며 "앞으로도 공감 이벤트를 확대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세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어울림학교 지정 맞춤형 지원

도교육청, 통학구형 등 110교 지정 18억7000만원 투자

전북도교육청이 2기 어울림학교 110교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적극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기 어울림학교 106교를 운영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4교를 늘려 2기 110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울림학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인근 큰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해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는 '공동 통학구형'이 41교, 인근 학교(동학급교)와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작은 학교 협력형'이 13교, 초·중등학교가 서로 연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연계형'이 7교,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

교와 마을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학교-마을 협력형'이 49교다.

도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 테마형을 학교-마을협력형으로 통합했다. 1기때 19교였던 작은학교 협력형은 올해부터는 작은학교협력형 13교에 초중등학교 연계형 7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통학구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어울림학교 110교에 올해 총 18억7,000만원을 지원해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과 농어촌 학생 진로교육 활동 활성화, 해당 지역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파후학교 운영비 지원, 초등 저학년 불교실 운영 등 맞춤형 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

전주시의회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40여 명은 9일 모래내 시장을 방문해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김 의장은 시장 상점 곳곳을 돌아 보며 경기침체와 유통구조의 다변화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서민 경제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승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879,359,901
04	인건 지급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99

홍보대사 류수영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한국)